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9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31조제7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8. 7.

다. 회 부 일 : 2026. 8.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Ⅲ. 검토의견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31조제7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과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⑥ (생략)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11. ~ 18. (생략) ⑧ ~ ⑪ (생략)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u> <u>10의3.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u> 11. ~ 18. (현행과 같음) ⑧ ~ ⑪ (현행과 같음)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오징어 게임(Squid Game),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를 비롯하여 국가유산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으로 올해 방영된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가상의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왕의 즉위식 장면에서 자주국의 예법인 ‘황제(12면류관·만세)’ 대신 중국의 제후국을 상징하는 예법(9면류관·천세)과 중국식 차 문화를 노출해 한국의 자주적 지위를 격하하고 동북공정을 차용했다는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음.

이와 같은 역사왜곡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 타국의 역사 왜곡에 명분을 제공하고 콘텐츠의 진정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자문 지원을 통해 사전에 역사왜곡을 사전에 방지하여 한류 콘텐츠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한국콘텐츠가 글로벌 OTT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김치를 라바이차이(중국식 매운 채소 절임)로 오역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하는 등의 문제¹⁾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는 역사란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과 관점이 개입될 수 있어, 콘텐츠 진흥기관이 역사자문 업무의 주기관이 될 경우 창작에 대한 심사나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79

1) 『매일경제』(2024), 「김치가 ‘라바이차이’?...반복되는 OTT 오역」, 『중앙일보』(2021), 「“꺼져”를 “저리가”로 번역?...‘오징어게임’ 어색한 영어번역 논란」